



우리 기업이 뽑은 유망신흥시장, 베트남

- 저성장 시대를 맞아 BRICs 이후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해야 -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 역시 2014년 7.4%로 1990년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무역협회 회원사들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아시아, 중동, 남미 등의 신흥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시장다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1

2015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무역거래 둔화 등의 위험요인에 따라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에 그칠 전망

○ 기존 전망치 3.4%를 하향조정했으며, 선진국은 2.4%에서 2.2%로, 신흥국은 5.4%에서 4.8%로 하향 조정

- 대표적인 신흥국인 브릭스의 경제성장률 역시 대체로 하향조정된 반면, 모디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는 브릭스 중 유일하게 상향조정

* 2017년 인도는 중국의 성장률을 넘어설 전망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4 ^e		2015 ^f		2016 ^f		2017 ^f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세계	2.8	2.6	3.4	3.0	3.5	3.3	3.2
선진국	1.9	1.8	2.4	2.2	2.5	2.3	2.2
미국	2.1	2.4	3.0	3.2	3.0	3.0	2.4
유로존	1.1	0.8	1.8	1.1	1.9	1.6	1.6
일본	1.3	0.2	1.3	1.2	1.5	1.6	1.2
신흥국	4.8	4.4	5.4	4.8	5.5	5.3	5.4
브라질	1.5	0.1	2.7	1.0	3.1	2.5	2.7
러시아	0.5	0.7	1.5	-2.9	2.2	0.1	1.1
인도	5.5	5.6	6.3	6.4	6.6	7.0	7.0
중국	7.6	7.4	7.5	7.1	7.4	7.0	6.9

주 :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기존 전망치는 2014년 6월 기준. 인도는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 World Bank

2

우리 기업이 뽑은 Next BRICs는 베트남

□ 브릭스 이외에 신흥시장 중에서 2015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베트남 등을 비롯한 아세안 시장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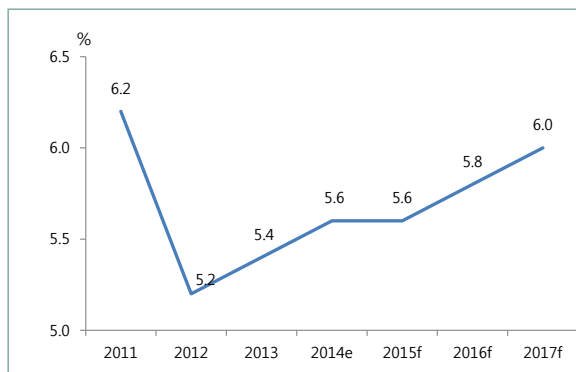
○ 2015년 1월 12~14일간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37명의 응답자 중 49.0%가 2015년 중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 1인당 소득(구매력 기준) 1,500달러 이상, 인구 수 1,500만 명 이상인 국가들 중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를 고려하여 선정한 32개국 중 2015년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국가들을 복수응답

– 베트남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9천만 명 규모의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 비중이 2015년 70.8%를 정점으로 2030년경에도 69.5%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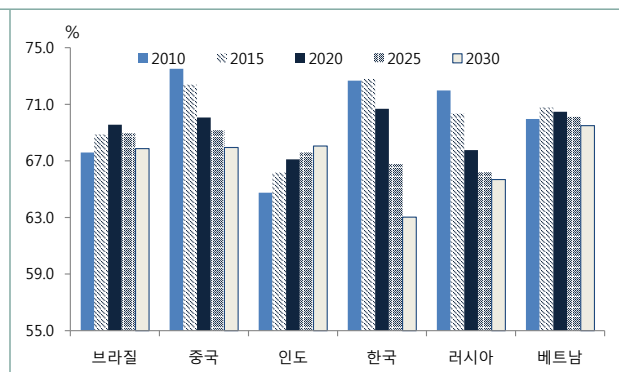
* 이는 BRICs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향후 생산 및 소비를 주도할 15~24세 젊은 인구 비중 역시 20.1%로 인도(19.0%), 중국(17.8%)을 상회(2010년 기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자료 : World Bank

BRICs와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UN(<http://data.un.org>)

□ 무역업계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상위 15위 국가에는 동아시아 7개국, 유라시아 3개국, 중동 2개국, 남미와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는 각각 1개국씩 포함됨

* 동아시아(7)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미얀마

* 유라시아(3) :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중동(2)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 남미(1) : 멕시코

* 동유럽(1) : 폴란드

* 아프리카(1) : 남아공

2015년 무역협회 회원사들이 뽑은 유망시장 상위 15위 국가

(단위 : US 달러, 백만 명, %)

순위	국가	응답자 비중	1인당 GDP	인구	경제성장률 전망			
					2014 ^e	2015 ^f	2016 ^f	2017 ^f
1	베트남	49.0	5,621	90.6	5.6	5.6	5.8	6.0
2	인도네시아	37.4	10,157	251.5	5.1	5.2	5.5	5.5
3	태국	30.0	14,443	68.6	0.5	3.5	4.0	4.5
4	말레이시아	28.5	24,521	30.5	5.7	4.7	5.1	5.2
5	터키	20.7	19,556	77.3	3.1	3.5	3.7	3.9
6	대만	18.8	43,600	23.4	3.5	3.8	4.2	4.3
7	필리핀	18.1	6,986	99.4	6.0	6.5	6.5	6.3
8	사우디아라비아	17.9	53,935	30.6	5.2	4.1	4.4	4.6
9	멕시코	17.3	17,925	119.6	2.1	3.3	3.8	3.8
10	이란	13.2	16,463	78.0	1.5	0.9	1.0	2.2
11	미얀마	12.5	4,752	51.4	8.5	8.5	8.2	8.0
12	카자흐스탄	11.0	24,144	17.4	4.1	1.8	3.2	4.7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0.6	12,722	53.7	1.4	2.2	2.5	2.7
14	폴란드	10.4	24,429	38.5	3.2	3.2	3.3	3.5
15	우즈베키스탄	9.9	5,564	30.6	7.9	7.4	8.2	8.1

주 : 응답자 537명 중 해당국가를 선택한 비중. 이집트 및 방글라데시는 회계연도 기준임.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으로서 2014년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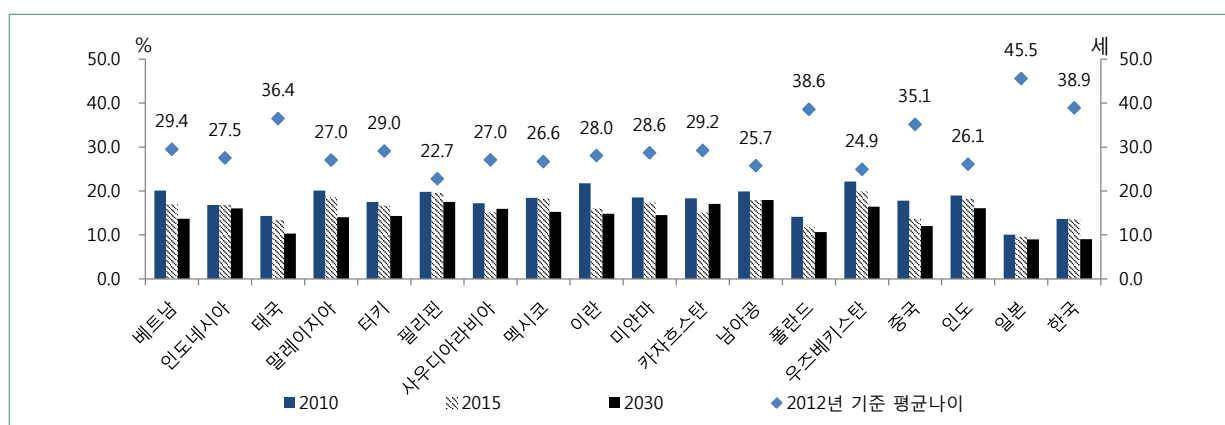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Bank

3 향후 내수 소비시장을 겨냥한 Next BRICs 진출

□ 응답 기업들의 50% 이상이 진출 목적에 대하여 ‘향후 내수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진출할 계획이라고 응답

○ 상위 15위 관심국가들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2014년 기준 4,500달러 이상이며 향후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젊은 인구(15~24세)의 비중이 높음

진출 관심국가 인구 평균나이 및 15~24세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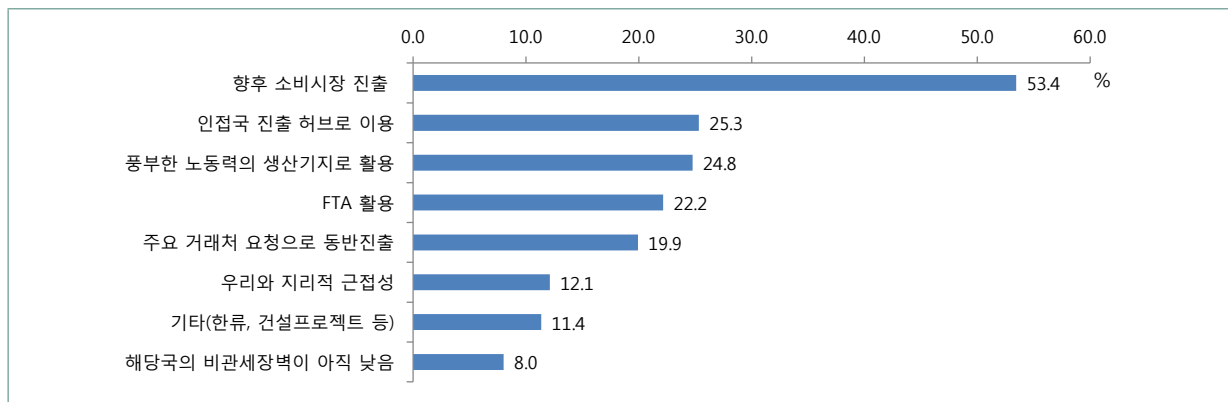
자료 : UN(<http://data.un.org>)

□ 또한 우리 기업들의 4분의 1 가량은 인접국 진출 허브로 이용하거나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을 기초로 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 신흥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 FTA 활용 및 주요 거래처 요청으로 동반진출하는 비중도 20% 내외를 차지

– 기타 진출 이유로는 한류 활용, 현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시장 다변화 등을 언급

2015년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수출 및 투자진출 목적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저성장 시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 및 중동, 남미 시장 등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향후 시장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보다 더 강화된 양자간 FTA 타결 및 발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베트남이 참여 중인 TPP 및 EU와의 FTA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타결된 한·베트남 FTA의 조기 발효가 필요하며,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등과의 FTA도 적극 추진 필요

□ 기업들은 국제유가 하락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므로 글로벌 경제 동향 및 신흥시장 각국의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송승이 (6000-6585, songiee@kita.net)